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꿈, 누가 주시는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11

2020

vol. 240



춘천성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추석 비전교회 섬김

9월 22일(화), 추석을 맞이하여 김리교, 성결교, 순복음, 장로교, 침례교의 150곳을 섬겼다.



춘천성시화운동 이사 조찬모임

〈9월 18일(금), 오전 7시 춘천순복음교회〉
2021년 춘천성시선교대회를 비롯한 춘천성시화운동연구소의 개원에 배 및 추석선물나눔, 성시화운동 영상제작, 2020년 정기총회, 온라인 예배 강의 등의 내용을 나누었다.
춘천성시화운동 2020년 정기총회는 11월 5일(목)로 결정되었다.

〈3쪽에 이어서〉

예수님은 갈릴리 어촌을 벗어나지 못한 청년들에게 꿈을 주셨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4:19).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28:19)”,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나사렛 같은 멸시받는 곳에 서도 선했던 것이 나온다(요1:46).

춘천성시화의 꿈은 인간의 욕망이 잉태되어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이상이요, 비전이다. 성시화의 본원지라는 역사성만 가지고는 박제된 호랑이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우선 춘천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성시화의 꿈을 품고 마음과 행동을 같이 하며 비신자들에게 연합과 선행의 감동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롬8:18).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성시화의 꿈에 참여하자.

CONTENTS

- 3 _ 성시화운동
- 4-5 _ 기쁜 만남
- 6-7 _ 특집 6.25전쟁 초기 춘천대첩과
폐허 위에 우뚝 선 춘천의 교회들
- 8-9 _ 특집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
- 10-14 _ 기관 교계소식
- 14-15 _ 알림·후원 참여
- 16-17 _ 유기농신시 & 인간가 죽음 춘천점
- 18-19 _ 우리들 이야기



김 창 환 목사(춘천은누리교회)

꿈은 누가 주시는가?

1974년 시골교회에서 세례 받기 전에 교육을 받았다. 30대 중반의 목사님은 칠판에 분필가루를 날리며 농·어촌선교, 학원선교, 직장선교, 도시선교, 기업체선교, 해외선교, 빈민선교, 청소년선교, 실버선교 등 선교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들을 가득 써 놓고 열변을 토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면서 청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삶을 바쳐야 보람 있는 인생이 된다고 했다. 가슴이 벅찼다. 그 가르침은 시골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다.

1978년 봄, 화천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다. 1979년 가을 첫 '문학의 밤'을 열었다. 주제는 '타임머신'이었다. 두 달 동안의 휘몰아친 준비는 학생들을 어리둥절하게 했고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면서 돈 들지 않는 문학의 밤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품은 폐품을 주워서 만들었다. 초창장도 손으로 제작하고, 학교마다 찾아가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특히 학교에서 주먹 좀 쓴다는 학생들을 주목하여 오도록 했다. 그들이 변하면 큰 부흥이 있을 것을 꿈꾸었다. 꿈대로 되게 해주셨다.

'타임머신'이란 주제는 20년, 30년 후의 '미래에 대한 꿈'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인사말에서 나는 꿈의 근원은 내가 되고 싶은 희망이나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이 되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고 설파했다. 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꿈으로 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꿈은 이루어진다.

수십 년이 지난 현재 그때 청소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과 밀착하며 국내외 교회에서, 사회에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고 있다.

1990년 5월,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인도를 받고 '성경중심적인 선교적 교회'로 출발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백세 인생에서 내 나이 중년을 훨씬 넘었으나 하나님은 계속 꿈을 주시어 안주하지 못하도록 강권하신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꿈으로 삼지 않고, 개꿈보다 못한 사육과 욕망을 꿈이라고 말하며 신령한 척 미혹한다. (렘29:8,9) 꿈(목시)이 없는 백성이 방자(무질서)하게 행한다(잠29:18). 꿈은 방향이며 목적이다. 하나님은 꿈이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며 꿈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꿈, 기대, 소망)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히11:1).

하나님을 꿈으로 삼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사자굴에 내동댕이쳐 질 줄 알고도 하루 세 번 기도했다(단1:8, 6:10).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꿈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울, 믿음의 사람들 모두 꿈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동행하면서 순종하며 살다가 꿈을 이루었다



다음세대는 국가와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요즘의 다음세대, 특히 초·중학생들의 성장환경은 부모들의 맞벌이, 성적 위주 교육 및 평가, 세속적인 가치관의 형성, 인성·예절 교육의 경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신앙을 가진 자녀들을 성경 중심의 바른 영성과 인성을 지닌 차세대 리더들로 양육하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순복음춘천교회(담임목사 이수형)는 2018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춘천성시화의 중심이 되는 교회’, ‘한국교회에 불을 밝히는 교회’,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의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담임목사, 교역자, 기관대표자들이 다음세대 양육에 앞서가는 당진동일교회(담임목사 이수훈)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감명을 받고 도움을 받으며 비전스쿨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구체화하며 이수형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2019년 8월말 27명의 초·중학생들과 순복음춘천교회 비전스쿨(VCA)을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스쿨은 교회학교의 연장선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학교와 학원과는 차별된 학습 내용과 방법으로 ‘영성·인성·지성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방과 후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으며 예배, 성경공부, 소그룹 활동, 품성 훈련, 영어 및 악기 학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꿈이 있는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를 양육하는 비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전스쿨의 아이들은 감사를 알고, 민족과 세계를 품고 애국하며, 대의를 위하여 희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리더들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남

개교 후 2년 차를 맞는 순복음춘천교회 비전스쿨은 2020년 9월 현재 사무엘반(1,2학년), 다윗반(3,4학년), 다니엘반(5,6학년)으로 편성되어 45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춘천시 관내의 17개 초등학교에 다양하게 재학하고 있으며 순복음춘천교회 출석 어린이뿐만 아니라 타교회 출석 어린이도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비전스쿨의 스쿨버스로 등교하여 각반의 프로그램에 따라 밤 7시30분 까지 학습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스쿨버스로 귀가합니다.

주된 교과내용은 크게 성품, 영어, 지식, 예능, 공동체 영역으로 구성되며 예수님 닮기, 글로벌 리더, 생각 키우기, 풍성한 마음, 함께 자라기의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각 반은 담임교사가 전임으로 교과 학습, 영성훈련, 품성훈련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영어, 악기, 수학, 코딩, 미술 등의 특기 교육은 전공 교사들이 담당합니다. 또한 비전스쿨의 지원팀으로 차량팀과 영양관리팀이 학생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내딛은 순복음춘천교회 비전스쿨은 COVID-19로 인해 사회, 교육 다방면에서 쓰러린 성장통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착실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 년지계이며 다음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비전스쿨이 다음세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비전을 전달 함으로써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대로 세워나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6.25전쟁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란 주제로 한국전쟁의 참혹함과 성도들의 눈물겨운 몸부림을 교훈으로 삼기 위해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특 집

폐허 위에 우뚝 선 춘천의 교회들

김동정 장로

(신성교회, 가톨릭관동대 교수)



폐허가 된 춘천(1951.4.1)

폐허가 된 춘천과 교회예배당

1952년 봄, 한국기독교연합회(NCC)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전쟁 중 완파된 예배당은 감리교 84 곳, 장로교 152곳이었고 반파된 곳이 감리교 155 곳, 장로교 468곳에 달했으며, 기독교 계통 학교와 병원, 기타 건물들도 대부분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1·4후퇴 이후 전개된 춘천지역에서의 전투로 춘천지역은 시내 전체가 거의 파괴될 정도였다. 이에 마석피난(1950.11.18) 때까지만 해도 무사했던 춘천중앙감리교회의 예배당 건물은 물론이고 봉의동

에 있던 선교부 건물도 대부분 파괴되었고 옥천동에 있던 2층짜리 선교부 병원 건물도 폭격을 맞아 지붕과 2층이 날아가고 1층만 남았다.

1953년 3월 춘천지방감리사 박내철(춘천중앙교회)이 보고한 내용 중에 “연회에서 미수복지인 춘천지방에 단독 임명을 받고(1951.11) 지방을 순회해 보니 세 곳만 반파 정도로 남았을 뿐이요, 15교회 예배당과 15기 도처와 주택 및 부속기관 전물전부가 전소 전파의 참상”이라고 하였고 195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연회에서는 “지방 내 복구상황을 볼 때 신축예배당으로 완성 봉헌 예배당 수 15, 신축 중에 있는 예배당 수 6인데 ... 끝으로 미 군목들의 투지와 우리 감리교 군목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리고 미 모교회에 의한 후원 원조와 총리원의 원조를 감사드리며 특히 선교사 구포리 씨의 협력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부흥 발전만이 있을 본 지방형편을 보고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1951년 11월부터 1955년 3월까지 박내철 감리사가 교회복구 등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눈물로 성전재건하는 춘천 성도들

중앙감리교회의 경우, 수복 후 요선동 한옥에서 예배드리다가(중앙교회 땅에서 400~500m 떨어진 곳) 1층이 남아 있던 병원건물에 2층을 올리고 예배당으로 개조하여 임시로 예배를 드렸다. 1955년 미 선교부의 복구 보조비 480만 원과 현금 120만 원으로 남선교부 병원건물(붉은벽돌 건물)을 인수하여 교회(현 옥천동 춘천미술관)를 재건하였다. 후평리감리교회의 경우, 역시 미군 공병대의 후원과 김종철 선생(훗날 장로)의 노력으

로 지어졌다. 김종철 선생은 친척의 발을 빌려 예배당 기지를 확보하고 우두교회 이재선 담임목사에게 부탁하여 설계도를 대강 그렸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춘천지방감리사인 박내철 목사가 춘천 대건사에게 청부를 주어 건축을 시작하였다. 후평리 교회는 1954년 4월에 건축을 시작하여 그해 11월초에 완공하였다.

우두교회의 경우, 이원석 장로의 땅 160평 기증, 우두동에 주둔하고 있던 공병대의 목재와 시멘트 제공, 미국에 연수(세계 YWCA 지도자 훈련 연수) 갔던 이원석 장로의 차녀 이원화의 함석지붕 비용 300달러(이원화가 출석한 미 제임스타운 제일감리교회 100달러 포함), 성도들의 정성어린 기도로 1955년 5월 20일 류형기 감독을 모시고 봉헌예배를 드렸다. 석사감리교회의 경우, 1951년 10월 5일 김광예 성도의 집에서 '동춘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복구되어 평신도 사역자 장희성이 시무하였다. 그 후 석사동 491번지로 옮겨 천막 예배당과 흙벽돌로 된 3칸 주택을 세웠다. 1954년 10월 15일 AFAK(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 미군대한원조) 원조로 석사동 360-1에 목조 예배당 50평을 건축하여 봉헌하였다.

동부장로교회의 경우, 1952년 3월 1일 판자집으로 된 47평의 임시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7월 7일 준공하였다. 이어 1955년 4월 5일 72평의 붉은 벽돌 예배당이 착공되었다. 제2군단 공병대의 도움과 성도들의 열정으로 1956년에서 57년경 예배당이 세워진 것이다. 그들은 교회에 올 때마다 벽돌을 날랐고 기초공사에 소요되는 돌들을 소양강가에서 날랐으며, 여성 성도들도 모래를 나르는 등 '몸 연보'까지 아낌없이 드렸다. 드디어 1960년 7월 2일 헌당예배를 드렸다.

춘천중앙성결교회도 수복 후 1952년 5월에 홍순각, 최정화, 신덕기 등이 김규호 목사를 모시고 교회재건을 하고 1953년 9월에 목조건물로 신축하여 1967년 10월 새성전 건축을 위해 철거될 때까지 활용하였다.

받은 대로 돌려준 보은의 성전 건축

이 이야기는 6.25전쟁 직후 미군 장교의 관심과 미 공병대의 인력과 자재지원으로 세워진 춘천가산감리교회에 관한 것이다. 6.25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종전을 위한 협정이 한창이던 1953년 6월 10일故 강순희 권사의 가정에 기도처가 만들어지고 1953년 8월 10일에는 기도처를 가산교회로 호칭하면서 첫 교역자 이영선 전도사가 부임하였다. 그렇게 한 가정집의 사랑채에 모여 열심으로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 것일까? 우연한 기회로 연결된 미 제124사단 2공병단에 근무하던 댄 소위의 관심을 시작으로 그토록 갈망하던 교회건축이 시작되고 미 공병대의 인력과 자재의 지원으로 1954년 5월에 여럿한 십자가를 내건 예배당이 완공되어 동면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2013년 가산교회는 교회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이원주 선교사(충북연회 제천 시온성교회 소속)를 통해 잉마병교회, 인레곤교회 두 교회를 건축(2019년 봉헌)을 하였고 현재 민동교회와 기숙사를 건축(2021년 봉헌예정) 중에 있다. 60년 전 가정집에서 예배하던 때에 이름 모를 이들의 도움으로 예배당을 세웠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던 중,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사를 통해 “3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당이 없어 가정, 가정에서 돌아가며 예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과거 받은 대로 돌려주자’는 슬로건 아래 속회헌금 일체를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작정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했다는 것이다.



우두감리교회 성전봉헌 후 기념 (1955.5.20)

오익석 목사

(순복음조은교회 담임
전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얼마 전 jtbc tv뉴스에서 자신을 여성이라 말한 남성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를 봤다. 탕 안에 있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하는 사람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기사였다. 이런 사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된다.

이러한 법은 우리 사회에서 관습과 문화로 성립한 질서와 법적 판단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법 감정상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많은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제 국회는 30일 동안 10만 명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 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나이, 언어, 신체조건, 종교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원인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이 법안은 동성애 차별 문제 외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다른 아닌 사법(私法)이 보호하는 ‘사적자치원리’가 차별금지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준비했던 ‘차별금지법안’은 보수 기독교 단체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차별금지 사유의 일부를 삭제하는 수정을 거쳤지만 결국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그 후로 이 법안은 논란에 논란을 거듭했다. 노회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던 법안도 임기 만료로 함께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 권영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던 법안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는 최원식 의원 등 12인의 법안과 김한길 의원 등 51인의 법안이 마찬가지로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김재연 의원 등 10인의 차별금지법안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2010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구성했고, 현재 약 12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제인권기구에서는 반복해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하여 왔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로는 헌법 제11조 제2문에서 천명하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이 법에 신중한 입장은 우리 헌법이 기본권에 대해 포괄적 보호를 이미 천명하고 있고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침해받지 않음을 표명하기에 열거주의가 중심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독일이나 유럽처럼 이 법이 차별금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제를 통한 평등의 실현이 목적인다는 점에서 현재 정의당에 의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명칭도 그렇지만 법이 구현하려는 정신에도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법학자들 사이에 제기된다.

‘사회적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경계는?

중국과 한국 같은 동아시아 유교 사회에서 축적된 문화적 관습과 질서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이었다는 점을 많은 이들은 간과한다. 아울러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근대화 경험과 6-25를 통해 고착화된 관습적, 사회적 질서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자기 집단에 대한 충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인의 ‘타인 신뢰도’는 26.6%로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그만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웨덴이나 독일 수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진다.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원을 알아야 한다. 이 법안의 시작이 된 유럽은 EU라는 공동체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일하며 사는 데 있어, 각국의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려는 ‘국제화’의 포괄성을 추구했다. 따라서 EU 회원국들은 EU 의회의 강제성에 복종해 각 국가마다 공통규약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독일의 경우 우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기본법 제정 시 독일 국민의 찬성률은 15%에 지나지 않았다.

메르켈의 기민당은 처음에 이 법에 반대했지만 EU의 경고로 인해 결국 사민당과 타협해 법률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가령 신나치주의자에게 방 임대하기를 거절한 주인이 고소되는가 하면,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직장에서 정년퇴직 통고를 받은 이들의 소송으로 법원은 골머리를 앓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독일의 평등법이 선언한 ‘세계관’에 의한 차별금지가 정치적, 사상적 차별금지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중에 ‘사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어떻게 훼손하게 될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보수적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측면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크리스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단지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소상공, 자영업에게도 사적 자치의 원리와 충돌하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과 연계한 폭넓은 공론과 국민적 합의의 장이 필요한 이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코 모든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악법이 될 수 있다. 이 법 내용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크게 제약을 받게 되고, 국가와 모든 국민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안팎으로 크게 위축되고 억압받을 수 있다. 차별이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게 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면 된다. 구태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제정하여 온 국민을 억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관점을 넘고 동성애의 찬반을 넘어 철저히 국가와 국민과 다음 세대의 안위와 평안,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가해자와 피해자와 고발자와, 범죄자가 되는 악법을 피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할 공공의 가치 구현을 이루자는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2020 정책 세미나 |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수형 목사, 이하 강기총)는 9월 3일 ~ 4일, 강릉 스카이베이경포 호텔에서 2020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지침에 준수하며, 이수형 강기총 회장과 도내 18개 시·군 연합회 임원으로 최소인원만 참석하였다.

정책간담회에는 강기총 회장 이수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최문순 도지사와 곽도영 도의회 의장, 김한근 강릉시장과 강원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강기총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강원도 저출산 대책 및 다음세대 교육 프로젝트,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 선교사역, 결핵사역,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강원도 국회의원과 의 만남, 통일한국을 위한 강원도 교회의 역할, 남북모델 도시 프로젝트, 강원도 도시별 조찬 기도회 개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기도회, 강원발전과 사회공헌에 대한 방안 등을 나누었다.

최문순 도지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 폐회식 때 추운 영하의 기온에서 따뜻한 영상의 기온으로 바뀐 것은 기도의 응답이다. 미국 조찬기도회 참석을 통하여 정치인은 정치도 잘해야 되지 만 기도도 잘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올해 강원도 조찬기도회를 함께 개최하게 되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2024.1.19.~2.2/15일간 강릉, 평창, 정선)을 유치하게 되었는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도록 강원도민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제2회 대한민국 강원도조찬기도회 개최 저출산 대책 세미나, 정책간담회 및 조찬기도회로 진행

남북복음통일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위한 제2회 대한민국 강원도 조찬기도회가 10월 12일 ~ 13일, 강원 인제 스피디움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 강원도 조찬기도회는 6.25 전쟁 70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지난 6월 25일 역사의 현장, 생태계의 보고, 평화, 생명, 생태의 국토 중심, 남북 접경지인 철원에서 열렸다.

제2회 강원도 조찬기도회는 강기총(회장 이수형 목사),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함께 기도하며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 남북복음통일, 강원도 저출산 대책 및 다음세대 교육 등 지역별 교류 협력 방안을 나누고 기도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 초청대상은 도지사 및 도 관계자, 시군 지자체 단체장, 강기총 임원 및 18개 시군 지역연합회 임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회의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최상기 인제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한왕기 평창군수, 백중현 문화체육부 종무관 등이 참석하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귀한 행사에 함께 해서 감사하다. 미국 조찬기도회 참석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올해 강기총과 함께 강원도 조찬기도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 강원도 발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하여 교계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1.19~2.2/강릉,평창,정선)을 유치했는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도록 잘 준비를 하겠다. 성공적인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 말했다.

강원도와 강기총은 올 하반기에 강원기독교문화 순례 서적 발간 및 출판기념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포럼 및 기도회, 강원도도목협의회 간담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춘천시 조찬기도회 |

2020년 9월 14일(월), 오전 7시 춘천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춘천중앙성결교회(담임목사 장기동)에서 춘천시 조찬기도회가 있었다.

이재수 시장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평화이며, 평화와 생명이 춘천의 중심언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지속케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야 생명이 존중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된다고 말하였다. 이재수 시장은 춘천의 교회들과 함께 진정한 평화와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 홀리클럽 창립24주년 감사예배 |

10월 21일(수) 오후 12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홀리클럽 창립 24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초대회장이었던 조남진 장로(순복음춘천교회)가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신임회장은 남준섭 장로(순복음춘천교회)가 되었다.

춘천 장로교 연합회 찬양집회 |

10월 25일(주일) 오후 7시, "503회 종교개혁주일 예배 PASSION&REVIVAL"의 주제로 예배를 드렸다. 강사로는 임우현 목사(징검다리선교회 대표), 찬양은 Amazing Things Worship이 함께 했다.



제11주기 김준곤 목사 추모예배

김준곤 목사 11주기 추모예배가 9월 28일, 경춘 공원묘원에서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박성민 대표와 본부의 있는 리더십 간사들, 그리고 춘천의 안장렬 간사, 조용호 전국 나사렛 회장, 장기영 춘천 나사렛 회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승록 목사는 '착하고 충성된 삶'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이에 앞서 춘천 간사들도 김 목사님 묘소를 찾아 캠퍼스, 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김 목사님의 삶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 예배 세미나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10월 27일(화), 오전 10:00-오후4:00까지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91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하여 온라인 예배 세미나를 하였다.

강사는 교회성장연구소 김대학 목사였으며 교회성장연구소는 빌리그레이엄 전도협회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제60차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 정기총회

10월 29일(목), 오전 10시. 순복음조은교회에서 춘천목회자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었다. 2021년 회장은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 담임)가 총무는 차성희 목사(샘밭침례교회), 서기는 김용기 목사(푸른샘감리교회), 회계는 기준호 목사(세상을 비추는교회)가 맡게 되었다..



제25차 춘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10월 29일(목), 오전 11시. 순복음조은교회에서 춘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었다. 손광오 목사(강변성결교회 담임)가 2021년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춘1000인 천원나눔 운동' 협약식

10월 27일, 춘천시와 강원CBS, 춘천시성시화운동본부, 춘천기독교사회복지협회,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시장 접견실에서 '춘1000인 천원나눔 운동' 협약식을 맺었다.

춘1000인 천원나눔 운동은 시민 한 사람이 기부계좌를 개설, 매월 천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희망자는 매월 1계좌당 천원씩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운동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천원나눔 운동을 통해 따뜻한 온정이 지역사회에 전파되기를 바란다. 특히 강원CBS와 교계에서 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독교계뿐 아니라 춘천시 전체로 이 운동이 널리 퍼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알려드립니다

+춘천시성시화운동

-춘천시성시화운동 총회, 연구소 개원예배
일시 : 11월 5일(목), 오전 11:00, 오후 1:30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행사
일시 : 12월 5일(토) 오후 4:00
장소 : 식사감리교회

남/여 신학생·편입생 모집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간) 8학기	■ 세례를 받은 자 ■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 본원이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
연구원	(주/야간) 4학기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됨 ■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소개**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준신학으로서 최고의 학업시설과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청교도 개혁주의 보수신학입니다. 본 교단은 여육 제도가 있습니다.

■ **특전** - 방학 없이 2년 8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 여육 제도가 잘 활성화되어 있음

■ **입학시 구비서류** 입학원서, 사진, 신분증 사본

수료 후 본교단에서 목사고시 후 안수 받을 수 있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강원신학 춘천캠퍼스

수시모집

춘천시 동면 만천리288-9 밝은빛교회

033)243-5354

주영 CAR용품점

자동차의 모든 것

주영자동차용품에서 해결하세요!

360°어라운드뷰시스템, 네비, 블랙박스,
선팅, 어린이안전장치, 자동문, 언더코팅



033-253-9106

춘천시 보안길 140 (동광오거리)

KYOCERA
한국교세라비지

교회 사무기기 전문업체

컬러복사기 판매 및 임대 전문

디지털칼라복합기,
인쇄기, 레이저프린터,
팩시밀리,
각종 전산소모품



미래 아이엔티 033-253-3211

대표 권오선(권사) 010-5367-3210

유기농신시 & 인산가 죽염 춘천점

이옥란 권사
(춘천중앙감리교회,
CBMC 춘천지회 회계)



저희 매장은 춘천시 퇴계동 한주아파트 먹자골목 큰길가(나눔성결교회 밑)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입니다. 유기농 전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 유전자 변형제품이 아닌 Non-GMO(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제품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요즘 잘못된 식생활, 그리고 공해와 스트레스로 불치병 환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대체 의학의 개념으로 바람직한 식생활과 음식을 통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 독립운동가셨던 인산 김일훈 선생의 의학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생은 활동 당시, 난치병과 사고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염 요법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일본군에게 붙잡힐까 봐 깊은 산 속에 숨어 살면서도 끊임없이 의학 연구에 매진하셨습니다. 오늘 날까지도 인산의 명성은 대단합니다. 요즘 각 지역에 한 대리점씩 branch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암환자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인산의학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죽염은 질병 예방과 면역력증강에 효과가 있고,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며 치아건강 외에도 효과가 좋아 찾는 애호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현대인의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저는 저희 매장을 위해 기도할 때, 매장을 드나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방문객 중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께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인산 죽염과 홍화씨, 죽마고우, 유황오리진액, 올리브 잎 엑기스 등 상담이 필요한 제품을 나름대로 열



심히 연구하여 고객 분들께 설명해 드립니다. 그때 제 말을 믿어주고 신뢰해 주며 상품을 구입해 주시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그 틈을 타서 전도폭발에서 배웠던 테마 별 주제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고객의 긍정적 반응을 볼 때, 영적 교감을 나누며 인간적으로 친해질 때 제일 보람이 큼니다. 저희 매장에 네모진 탁자와 4개의 의자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은 저에게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IMF 경제 위기에 남편의 실직과 증권투자로 곤두박질쳤던 가정 경제로 고통과 절망에 빠져 신음했습니다. 또 자녀들의 성장과 진학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천사처럼 나타난 교우와 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벼랑 끝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제 편이 되셨고, 때를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때마다 저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저를 사막과 광야에서 건져 이곳 오아시스(유기농신시&인산가 춘천점)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침마다 햇빛이 들어오는 매장에 출근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지회 친구 권사님이 가게 앞 화단에 심어준 두 종류의 사랑초가 풍성한 꽃을 피우며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꼭 제 사업의 번창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사업의 번창을 통해, 과거 위급한 순간에 부르짖고 서원했던 일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매장을 드나드는 손님 한분 한분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장소가 바로 저희 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중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픔과 고통을 사명으로 승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유기농신시&인산가춘천점 대표 이옥란 ☎ 033 262 6236





김호성 목사
(국제도시선교회 ICM 대표/
미국 재부흥운동 대표/
뉴욕, 미동부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

2020.9.9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기재 했습니다.

유창하고 능숙한 설교의 영향으로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흥들이 설교보다는 기도와 눈물, 그리고 회개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1857-59년에 있었던 뉴욕 맨하탄의 월스트리트에서의 “정오의 기도 모임”에서 실제로 설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 기도 모임이 미국 역사상 그 어느 영적 각성보다도 더 많은 추수를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미국 인구는 삼천만 정도였는데, 미국 전역에 걸쳐 백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추정됩니다. 그 숫자는 오늘날의 인구에 비례했을 때, 구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한 것과 비례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이곳 뉴욕 월스트리트에는 제레미아 렌피어(Jeremiah Lanphier)라는 청년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뉴욕시에 있는 한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에서 수요일 정오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맨 첫 주에는 여섯 명이 나왔고, 다음 주에는 스무 명, 그 다음주에는 사십 명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날마다 기도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에드윈 오어(J. Edwin Orr)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 모임에는 열광적인 모습도 광신적 성향도 없었으며, 단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움직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설교는 없었습니다. 대신, 누구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자, 1857년의 대공황이 닥쳤고 채권시장이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불과 한 달 이내에 무려 1,400개의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렌피어 교회의 정오 기도 모임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에서 모였습니다.

동쪽 브로드웨이 근처의 John Street 감리교회도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곧 Chambers Street의 Burton's 극장도 정오마다 3,000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곧 보스턴, 뉴헤이븐, 필라델피아, 워싱턴, 그리고 미국 남부 지역 도시들에서도 재현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봄에는 2,000

명의 시카고 시민들이 기도하기 위해 날마다 메트로폴리탄 극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 도시에 방금 도착한 21세의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이러한 모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일하도록 부르심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 모친에게 주일학교를 시작할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는 다름 아닌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Dwight L. Moody) 였습니다!

오늘날의 아메리카가 목회자나 기독교 서적, 성경 번역들, 그리고 훌륭한 교리적 성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결여된 것은, 그분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실 때까지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열정입니다.



하바드 대학에서의 부흥기도 운동
(미국 재부흥 운동 보스턴 구간)

<짐 심발라(Jim Cymbala) 목사의 메시지>

'1.1.1. 북미주 부흥 기도운동'은 이 시대가 160년 전의 그때 그 시절과 같이 암울한 난세를 만나 오직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임을 '1.1.1 부흥기도'를 통하여 깨우치며 북미주 한국인의 잠자는 기도를 깨워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의 부흥기도운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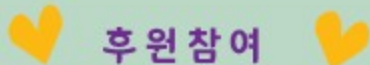
매일 오후 1시 1분간 CTS-TV와 유튜브와 메스미디어를 통해 매일 송출되는,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기도제목을 한마음으로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부흥기도 운동으로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

립니다. <111RevivalPrayer@gmail.com / 미국 718)683-6332 / 한국 02)779-1882>

성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를 간증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 편집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문자(010-9698-2993) 메일(holycc1972@daum.net)



후원 참여

신협 131-005-937566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TEL 033)256-1260 FAX 257-1260

HP 010-9698-2993

자스민은 각종 모임, 회식, 상견례 등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친절한 서비스, 최고의 맛으로 여러분의 외식문화를 한 차원 높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 주일은 휴무입니다

월-토 : 11:00-22:00

Break Time : 15:00-17:00(평일) 청동 중국요리 전문점

자스민

Tel : 033-241-5453

춘천시 우묵길74번길 14

모두 CBS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CBS를
보고, 듣고, 읽고 있습니다.

출근길 차가용이나 버스에서 듣는 친근한 **라디오 음악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올바른 노컷뉴스가**

언제 어디서나 즐겨 찾는 **인터넷 강원 CBS와**

휴대폰으로 만나는 **강원 CBS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콘텐츠가**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 감동적인 **TV프로그램이**

모두 **CBS** 입니다.

FM 93.7

FM 94.9

280

182

강원CBS 홈페이지 OPEN 이벤트

강원CBS

축하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강원CBS 홈페이지가
실시간으로 TV와 라디오를
서비스합니다

가성 뮤지컬 공연

JDM개척 43주년
강원 CBS 개국 25주년

세상을 구원한 단 한 권의 책
덜으려는 자, 그러나 찢어려는 자!

MUSICAL THE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 BOOK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공연 일시 1회: 11. 28(목) 저녁 7시
2회: 11. 27(금) 저녁 7시
3회: 11. 28(토) 오후 2시
4회: 11. 28(토) 저녁 7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석 35,800원 ~ 15,000원

예매 010-2694-2819, 010-2569-2819

주: 강원CBS, 예수제자운동(JCM)

주: 김 씨수제자운동(JCM)

제작: (주) GAM-Gwangya Art Ministry
(연락처: 이호진, 김희정, 김희진, 김희진)

JDM

강원 CBS

강원 CBS

개국25주년기념
홍삼제품 특별할인판매중

제품구매수익금은
강원CBS 건축헌금으로 쓰여집니다

(5,000세트 한정판매_네이버쇼핑검색)



▶ 4분 성시

강원CBS 춘천성시화운동방송

방송일시: 매주 화요일 밤9:30

150,000원 > 48,500 원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농축액
(진제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함 20mg/10g
고형분 60% 이상, 국산)
특별소비자기 48,500원 / 1set(10g X 30포)